

2004 라스베가스 넷월드 인터럽 박람회 미국 주관사 미디어라이브인터내셔널, 협회 방문

오는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되는 '2004 라스베가스 넷월드 인터럽 박람회'의 미국 현지 주관사인 미디어라이브인터내셔널의 부사장 마르코 파르디(Marco Pardi)와 영업이사 윌리엄 칼슨(William Carlson) 등 5명이 지난 4월 23일 협회를 방문하여 향후 전시회 참가시 요청 사항에 대한 미팅을 가졌다.

이날 협회는 주관사측인 미디어라이브사에 한국관 참가업체 및 제품의 프로모션효과 극대화를 위해 현지 언론 노출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를 통해 향후 전시회 기간 동안 현지 언론사의 한국관 방문 및 인터뷰 취재 등 다양한 언론 프로모션 활동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한국 업체의 해외 시장 진출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홍콩경제무역대표부 대표단, 협회 방문



홍콩 정부의 대외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인 '경제무역대표부'의 수석대표인 알렉스 풍(Alex Fong)을 비롯한 수행단 5명이 지난 4월 14일 협회를 방문하여 한국과 홍콩간 물적·인적 교류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미팅에서 수행단은 국제비즈니스의 허브 및 중국 최대 자본 투자처로서의 홍콩의 역할과 홍콩 벤처단지인 사이버 포트(Cyber Port), 사이언스파크(Science Park) 등에 관해 자세히 소개했다. 양측 관계자들은 향후 한국 벤처기업이 홍콩을 거점으로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상호 협력 사업에 대해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갖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협회, 일본 시마네현 방문

협회는 지난 4월 23일부터 24일까지 1박2일 동안 일본 시마네현을 방문하여 한국 벤처기업의 일본 시장 진출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 및 기업 인프라 등 현지 비즈니스 현황을 파악하고 돌아왔다. 이번 방문은 4월 9일 일본 시마네현 기업업지와 방문단이 협회를 방문한 이후에 이루어진 미팅으로, 협회는 시마네현에 조성된 IT 비즈니스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향후 한국 벤처기업의 일본 시장 진출에 대한 다양한 지원 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